

『바람 일다(風立ちぬ)』의 서술시점에 관한 고찰

- 「바람 일다」와 「겨울」에서의 호칭을 통해서-

유재진*

jaejin@korea.ac.kr

차례

1. 시작하며
2. 「바람 일다」의 호칭 분석
3. 「겨울」의 호칭 분석
4. 맺으며

요지

堀辰雄의 『風立ちぬ』는, 「序曲」「春」「風立ちぬ」「冬」「死のかげの谷」의 5章で構成されている。第一章「序曲」から第三章「風立ちぬ」までは一人称小説体の叙述形式になっているが、第四章「冬」と第五章「死のかげの谷」は「私」の日記と、その叙述形式が変わってくるのである。また、語られる物語内容においては、「序曲」から「冬」までは節子の生前の話、「死のかげの谷」は節子の死後の話になっている。小説体と日記体とは、語り手の語りの時点が異なってくる。この問題に関して論者は、一つ素朴な疑問を提起してみた。ともに節子の生前のことを語っている小説体「風立ちぬ」と日記体「冬」では、どちらの語りの時点が先なのだろうか。つまり、物語内の時間としては「風立ちぬ」の方が先だが、叙述形式からして「風立ちぬ」の方が語りの時点は後になるのである。だとしたら、この「風立ちぬ」の語り手は節子の死をも経験した語り手な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である。そして、この疑問を解く手がかりとして本論では、小説体「風立ちぬ」と日記体「冬」での節子の呼称―「節子」と「病人」―の分析を用いた。

「風立ちぬ」では、節子の体調の変化にそって呼称が使い分けられていた。「風立ちぬ」の語り手は、死の前触れである節子の病態に意識を巡らせ、彼女の病気が悪化すると彼女を「節子」ではなく、「病人」と呼んでいたためである。一方、「冬」では、節子の体調とは関係なく、物語内の「私」によって使い分けられていた。「冬」には、「私達の幸福」を信じきるために「私達の物語」を書いている「私」と、それを読返すことによってむしろ現実の自分達を相対的に見てしまう「私」が語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冬」の「私」の二重性が節子の呼称にも反映されていたのである。

以上の考察を通して、「風立ちぬ」より「冬」の語り手の方が早い時点―節子が死ぬ前―で語りが行われていたことを確認した。『風立ちぬ』の語りは、第一章の「序曲」から始まるのではなく、「冬」の「私」の日々の記録としての日記から始まっていたのである。「私」と節子の「幸福」に迷いをいだいている日記(「冬」)の書き手(語り手)にとって、二人の物語を語ることはできず、ただ二人の現在を日々記すことしか出来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

키워드 : 호리 타쓰오, 서술형식, 서술시점, 일기체, 호칭

1. 시작하며

호리 타쓰오(堀辰雄 1904-1953)의 『바람 일다(風立ちぬ)』(野田書房 1938.4.)는, ‘호리 타쓰오의 (작품)세계 안에서도 가장 완성된 작품¹⁾’이라 일컬어지는 대표작이다. 『바람 일다』는 「서곡(序曲)」, 「봄(春)」, 「바람 일다(風立ちぬ)」, 「겨울(冬)」, 「죽음의 골짜기(死のかげの谷)」의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서곡」에서는 <나>와 세쓰코(節子)가 휴양지 K촌(村)에서 함께 보낸 여름날의 추억들이, 「봄」에는 약혼한 <나>와 세쓰코가 그녀의 병(결핵)을 고치러 사나토리움에 가기를 결심하고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바람 일다」와 「겨울」은 사나토리움에서의 둘만의 요양생활이,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에서는 세쓰코의 사후 K촌에서 홀로 겨울을 보내는 <나>의 나날들이 그려져 있다. 『바람 일다』는 이처럼 두 남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조용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시종 유지하면서 일인칭 화자 “나”의 서술로 전개된다. 하지만, 각 장의 서술 형식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동일하지 않다. 제1장 「서곡」부터 제3장 「바람 일다」까지는 일인칭 소설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제4장 「겨울」과 제5장 「죽음의 골짜기」는 <나>의 단편적인 일기로 서술형식이 변한다. 그래도 작품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서술형식의 변화는 ‘미묘한 차이²⁾’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소설형식과 일기형식은 분명히 이질적인 것이다. 일인칭 소설체와 일기체에서는 화자와 그가 서술한 서술내용과의 시간적 거리, 즉 서술하고 있는 시점(時点)에 차이가 있다. 특히, 『바람 일다』의 경우, 작품이 화자의 회상으로 시작되고 있으므로 서술의 현시점은 더더욱 애매하다. 『바람 일다』의 모두(冒頭)로 이 소설이 화자의 회상으로 시작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본다.

그 여름날들, 온통 참여새풀이 무성한 풀밭에서 네가 선채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난 항상 그 옆의 자작나무 그늘에 몸을 눕히려 했었다.(「서곡」)³⁾

[밑줄 필자. 이하 同]

1) 中島昭 『堀辰雄覚書—『風立ちぬ』まで—』(近代文芸社、1984.1.)p.29

2) 渡辺広士 「『風立ちぬ』の意味」『ユリイカ』(青土社、1978.9) p.152

3) 堀辰雄 『堀辰雄全集第一巻』(筑摩書房、1977.5.)p.452

본 논문의 본문인용은 모두 筑摩書房版 『堀辰雄全集第一巻』에 의하였다.

それらの夏の日々、一面に薄の生ひ茂つた草原の中で、お前が立つたまま熱心に
絵を描いてみると、私はいつもその傍らの一本の白樺の木陰に身を横たへてゐたも
のだつた。

이 작품은 화자가 세쓰코와 함께 보낸 여름날들을 ‘그(それらの) 여름날들’이라고 회상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서곡」부터 「바람 일다」까지의 소설체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화자의 현시점(現時点)은 작품 안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화자는 작품 모두의 풀밭 장면을 ‘그 여름날들’이라고 과거의 일들로 회상할 수 있는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서술내용에 대한 화자의 현시점에서의 감상이 때때로 언급되곤 한다⁴⁾. 한편 일기체는 그 날 그 날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임은 동일하나, 화자의 현시점에서 매우 가까운 과거다. 일기형식으로 서술된 「겨울」이나 「죽음의 골짜기」에서는 서술내용에 관한 화자의 현시점에서의 감상은 없으나, 일기를 쓰고 있는(서술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언급되곤 한다⁵⁾. 즉, 소설형식으로 씌어진 장에서는 화자와 화자가 서술하고 있는 <나>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있으나, 일기형식으로 씌어진 장에서는 화자와 <나>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람 일다』의 소설체 부분과 일기체 부분의 서술시점에 관해서 아카쓰카 마사유키(赤塚正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럼, 일기형식의 「죽음의 골짜기」에는 <나>의 현실의 시간이 그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여기(「겨울」과 「죽음의 골짜기」)도 역시 회상한 시간인 것이다. 이는 「죽음의 골짜기」가 <나>와 세쓰코가 처음 만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요컨대, (K촌)에서 동경, 그리고 K촌이라는

4) 너희들이 떠나 간 후, 나날이 나의 가슴을 조였던 슬픔을 담은 행복한 분위기를 나는 지금도 또렷하게 소생시킬 수 있다. (「서곡」)

お前達が発つて行つたのち、日ごと日ごと私の胸をしめつけてゐた、あの悲しみに似たやうな幸福の雰囲気、私はいまだにはつきりと蘇らせることが出来る。

5) 그 때 문득 머리 위에 걸려있는 달력이 아직까지 9월인 것을 알고, 일어서서 그것을 찢어내고, 오늘 날짜인 곳에 표시를 해 놓고자, 나는 실로 1년 만에 이 수첩을 연다.(1936년12월1일 「죽음의 골짜기」)

その時ひよいと頭の上に掛かつてゐる暦がいまだに九月のままになつてゐるのに気がついて、それを立ち上がつて剥がすと、けふの日付のところに印をつけて置いてから、さて、私は実に一年ぶりにこの手帳を開いた。

것은 야쓰가타케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는 사나토리움, 그리고 다시 K촌으로 회귀하는 〈나〉의 궤적은 〈내〉가 ‘자신들의 작은 행복’을 믿게 되는 과정과 불가분하게 겹쳐져 있다. K촌으로의 〈나〉의 회귀는 ‘자신들의 작은 행복’을 믿음으로써 모노카타리(物語)가 거기서 닫혀짐을 의미한다. 그렇게 닫혀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거기서 먼 장소,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시간을 과거로 하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⁶⁾

아카쓰카는 K촌으로의 〈나〉의 회귀를 〈내〉가 ‘우리의 행복한 이야기’를 믿게 되는 과정과 연관시켜 마지막 장인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러 완결되고, 〈나〉는 그때 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형식으로 씌어진 「겨울」과 「죽음의 골짜기」도 세쓰코가 죽은 후에 화자가 일부러 일기라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겨울」과 「죽음의 골짜기」는 굳이 일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아카쓰카는 이에 대답하고 있지 않다.

이 ‘왜 일기형식인가’ 라는 의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 고이즈미 고이치로(小泉浩一郎)와 안도 히로시(安藤宏)론이다. 고이즈미는 제4장 「겨울」부터 일기체로 서술 형식을 바꾸게 된 것은 ‘사랑의 이야기 틀 안에’ 〈나〉의 ‘고독’이라는 문제가 개입하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닌 ‘나의 에고이즘’을 응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⁷⁾. 안도론도 소설체에서 일기체로의 서술형식의 이행을 〈나〉와 세쓰코의 ‘우리의

6) 赤塚正幸 「『風立ちぬ』 『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1996.9.) p.98

では日記形式の「死のかげの谷」には、「私」の現実の時間がその現場から報告されているのだろうか。そうではない。ここもやはり、回想された時間なのだ。それは、「死のかげの谷」が「私」と節子の最初に出会った場所であるという点から考えることが出来る。つまり、(K村)から東京、そしてK村とは八ヶ岳を挟んで反対にあるサナトリウム、そして再びK村へと回帰する「私」の軌跡は、「私」が「自分達のささやかな幸福」を信じるに至る過程と不可分に重なり合っている。K村への「私」の回帰は、「自分達のささやかな幸福」を信じることで、物語がそこで閉じられることを意味する。そうした閉じられた世界について語ることで、それはそこを離れた場所、言い換えるならば、「死のかげの谷」の時間を過去とする場において初めて可能になるものであろう。

7) 小泉浩一郎 「堀辰雄の近代『風立ちぬ』の位置」 『テキストのなかの作家たち』(翰林書房,1993) 단적으로 말해 「겨울」의 작자(作者)는 〈사랑의 신화〉라고 개괄된 기성의 이야기 틀 안에 그것과는 결정적으로 이질적인 가열한 〈고독〉의 문제를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한 〈사랑〉을 둘러싼 〈고독〉의 문제를 응시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일인칭소설 『마담 일다』의 방법적 극치로서의 일기체라는 「겨울」의 장의 서술 스타일인 것이다. 〈나〉의 일기체라는 서술 스타일은 〈나〉에 의해서 의식되고 있지 않는 〈나〉의 에고이즘을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사랑〉의 해체위기를 독자들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端的に言って、「冬」の章の作者は、〈愛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작품의 주제가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⁸⁾.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화자와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화자의 시간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요컨대, 고이즈미나 안도론은 작품의 화자가 '우리의 이야기'를 서술한 다음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서술형식의 차이에 따른 서술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즉, 일기체로 씌어진 「겨울」의 서술이 과연, 소설체로 씌어진 「바람 일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화자의 현재를 통해서 알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화자의 현재는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인칭에 반영된다. 『바람 일다』에서 세쓰코는 「서곡」과 「죽음의 골짜기」에서는 '너(おまえ)'라고 2인칭으로 불리고, 「봄」, 「바람 일다」, 「겨울」에서는 '세쓰코', '그녀'라고 3인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인칭의 변화는 서술내용을 해석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 일다』에서의 인칭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다카하시 히데오(高橋英夫)는 '인칭을 결정하는 것은 일인칭에서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주동자의 내적 이유 밖에 없다⁹⁾(人称を決定するのは、一人称で表現されるべき主動者の内的理由だけである。)'고 하면서 미셸 뷰틀(Michel Butor)의 작품을 거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の神話)と概括されるべき既成の物語の枠内に、それとは決定的に異質な、苛烈な〈孤独〉の問題を持ち込みつつあるのだ。そのような〈愛〉をめぐる〈孤独〉の問題の凝視のために選びとられたのが、一人称小説『風立ちぬ』の方法的極地としての日記体という「冬」の章の叙述スタイルであった。「私」の日記体という叙述スタイルは、「私」によっては意識されざる「私」のエゴイズムを逆説的に浮き彫りし、〈愛〉の解体の危機を読者の前にあるがままに表現することになる。))

8) 安藤宏 「現実への回帰—堀辰雄『風立ちぬ』を中心に」 『自意識の昭和文学—現象としての「私」—』(至文堂, 1994.3.) 이어지는 「겨울」(昭12.1 『문예춘추』)의 장에 이르러, 작품은 돌연히 단장형식의 일기체로 변환된다. 〈우리〉로부터 〈나〉로의 회귀. 그때까지 〈세쓰코〉의 심리마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에 몸을 담고 있던 화자는 여주인공의 심리를 〈내〉안에서 융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단편적인 독백형식에 의해서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드러내보이게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続「冬」(昭12.1 『文芸春秋』)의章に至り、作品は突然断章形式の日記体に変更される。〈私達〉から〈私〉への回帰。それまで〈節子〉の心理をも見通し得る立場に身を置いていたはずの語り手は、ヒロインの心理を〈私〉の中に融合できなくなったとき、もはや断片的な独白形式によって自ら失ったものを浮き彫りにしてみせるしかそのすべはないのである。) 인용은 『堀辰雄『風立ちぬ』作品論集』(クレス出版, 2003.3.) p.314에 의하였다.

9) 高橋英夫 「二人称の余韻」 『ユリイカ』(青土社, 1978.9) p.99

그러나 뷰틀이 의식적 방법으로써 작품을 2인칭으로 일관한 것은 심리적 주제를 다룰 때, 작품내부의 현실과 작품 제작 중에 통과하고 있는 현실의 중층성(重層性)을 의식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 지도 모른다. 심적 현실, 심리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만이 외계의 사상(事像)과 촉발하고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석적이기도 한 것이다. 인칭의 병용 혹은 전환은 현실의 그러한 구조를 촉발한 인간의 가능태라는 의미를 갖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호리 타쓰오의 인칭기법은, 이보다 훨씬 소박하다곤 하지만, 그가 탐구하려고 한 심적 세계의 리얼리티에 따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¹⁰⁾

다카하시의 지적대로 인칭의 결정이 일인칭 화자의 내적이유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서술내용과 화자의 서술 중에 ‘통과하고 있는 현실의 중층성(重層性)’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칭분석의 효능은 호칭(呼称)에도 통용될 것이다. 작중인물의 호칭 또한 인칭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내적이유에 의해서 결정되며, 서술 내용과 서술의 현실의 중층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쓰코가 ‘세쓰코’나 ‘그녀’라고 3인칭으로 불리는 제2장 「봄」부터 제4장 「겨울」까지 그녀에 대한 호칭은 일관된 것이 아니다. 화자는 때때로 세쓰코를 ‘병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바람 일다』에서는 세쓰코의 호칭이 병용 혹은 전환되어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본론에서는 화자가 세쓰코를 서술할 때 사용하고 있는 호칭의 분석을 통해서 본론이 제시한 의문점, 화자의 서술 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바람 일다」의 호칭 분석

『바람 일다』에서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호칭, 특히 ‘세쓰코’와 ‘병인(病人)’의 사용

10) 주9)의 책, pp.100-102

しかし、ビュートルが意識的方法としてその作品を二人称で通したのは、心理的主題の扱いにあたって、作品内部の現実と、作品が制作中に通過している現実の重層性を意識し、それに対応するためであったかも知れない。心的現実、心理は人間の内部にあるものだが、外界の事象と即発しあい、相関関係に立つとすれば、分析的でもある。人稱の併用ないし転換は、現実のそういう構造に接触した人間の可能態という意味をもっていたかも知れない。そうだとすれば、堀辰雄の人称技法は、それよりもはるかに素朴なものであるとはいえ、彼が探究しようとした心的世界のリアリティに即していたことは、どうやら確かのように見えてくる。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반영된 화자의 서술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쓰코가 3인칭으로 불려지는 것은 「봄」, 「바람 일다」, 「겨울」의 3장이나, 「봄」에서는 화자가 세쓰코를 ‘병인’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으므로 「바람 일다」와 「겨울」의 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바람 일다」에서의 ‘세쓰코’와 ‘병인’의 사용 경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화자가 이 두가지 호칭을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밑의 표는 「바람 일다」에서 ‘세쓰코’와 ‘병인’이 사용된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1~10은 「바람 일다」장의 각 절(節)에 편의상 번호를 매긴 것이며, 알파벳A~D는 호칭이 ‘세쓰코’에서 ‘병인’으로 혹은 ‘병인’에서 ‘세쓰코’로 변한 곳이다.

(「바람 일다」에서의 ‘세쓰코’·‘병인’)

절	1	2	3	4	5	6	7	8	9	10
세쓰코	○○○○○	○	○	○○○○	○		○○			○○○
병인		○			○○○○○○	○○○○○○	○○○○	○○○	○○○○○○○	
					A		B C			D

위의 표를 보면, 제2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쓰코’라는 호칭과 ‘병인’이라는 호칭은 난잡하게 섞여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7절의 ‘세쓰코’에서 ‘병인’으로 호칭이 바뀌는 경우를 봐도, ‘세쓰코’라는 호칭으로 그녀를 가리키고 있는 단락과 그녀를 ‘병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단락 사이에 여백(1줄이 여백으로 삽입되어 있음)이 있어,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화자는 세쓰코를 부르는 호칭을 의식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자가 의식적으로 호칭을 구분하고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호칭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세쓰코’에서 ‘병인’으로, 혹은 ‘병인’에서 ‘세쓰코’로 호칭이 전환될 때의 작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

호칭이 ‘세쓰코’에서 ‘병인’으로 바뀌는 (A)의 경우, 세쓰코는 한 여름의 무더위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고, ‘완전히 식욕을 잃고, 밤에도 잠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부터 화자는 세쓰코를 ‘병인’이라고 부르

고 있는 것이다¹¹⁾. 세쓰코는 이날부터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사나토리움에 오겠다는 편지를 받아, ‘갑자기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아버지가 오시기까지 ‘일부러 식사를 하고, 가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거나 앉아 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때때로 소녀같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미소를 띠우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생기가 있는 세쓰코의 모습이 서술된다. 이 부분에서 그녀의 호칭은 ‘병인’이 아니라, ‘세쓰코’로 변한다(B)¹²⁾. 다음 (C)¹³⁾의 ‘세쓰코’에서 ‘병인’으로 호칭이 변하는 곳을 보면, 세쓰코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몸을 너무 무리하게 움직여서 아버지의 방문 전달에 열을 내고, 의사로부터 안정을 취하라는 주의를 받는다. 그 후 세쓰코는 아버지가 돌아간 후 혈담(血痰)을 토하는 발작을 일으키고 절대안정을 취해야만 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다. 그리고 이 절대안정의 위기로부터 겨우 빠져나와 그녀의 몸 상태가 호전된 부분부터 그녀의 호칭도 ‘병인’에서 ‘세쓰코’로 바뀐다.(D).¹⁴⁾

이상, 호칭이 바뀌는 A~D를 검토해 본 결과, 호칭은 세쓰코의 몸 상태(병의 악화와 호전)에 따라서 함께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세쓰코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녀의 상태가 좋고 생기가 있을 때, 그녀를 ‘세쓰코’라 부르고, 상태가 악화하면 ‘병인’이라 고쳐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세쓰코의 호칭이 그녀의 몸 상태와 연동하여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나>의 의식과도 연동하고 있는 것일까?

무더위 때문에 세쓰코의 병세가 안 좋아지고 호칭이 ‘병인’으로 바뀌는 (A)에서

-
- 11) 그렇게 병인의 머리맡에서 숨죽이고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나한테 있어서도 일종의 잠에 가까운 것이었다. 「바람 일다」(そのやうに病人の枕元で、息をつめながら、彼女の眠つてゐるのを見守つてゐるのは、私にとつても一つの眠りに近いものだった。)
- 12) 나는 간호원으로부터 건너 받은 한 봉치의 편지 속에서 그 중 한 개를 세쓰코에게 건네 주었다. (중략) 요즘, 누워만 있어서 식욕이 떨어지고 약간 마른 것이 눈에 띄게 된 세쓰코는 그날부터 일부러 식사를 하고 가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거나 앉아 있거나 했다. 「바람 일다」(私は看護婦から渡された一束の手紙の中から、その一つを節子に渡した。(中略) 近頃、寝たきりだったので食欲が衰へ、やや痩せの目立つやうになつた節子は、その日からつとめて食事をし、ときどきベッドの上にて起きて居たり、腰かけたりしました。)
- 13) 이미 거의 병인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직 그렇게 누워만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약간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다. 「바람 일다」(殆んどもう病人は癒りかけてゐるものと思ひ込んでゐたらしいのに、まださうして寝たきりで居るのを見て、父はすこし不安さうな様子だった。)
- 14) 나를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고 세쓰코는 침대위에서 항상 그렇듯이 머리카락 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어느 정도 슬픈 눈초리로 허공을 보라보고 있었다. 「바람 일다」(私には少しも気がつかずに、節子は、ベットの上で、いつもしてゐるやうに髪の毛の先を手でいぢりながら、いくぶん悲しげな目つきで空を見つめてゐた。)

〈나〉는 병 때문에 거칠어진 세쓰코의 호흡소리를 듣고, 그녀의 호흡곤란을 흉내 내면서 자신도 실제로 호흡곤란에 빠질 정도로 그녀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문이 서술된 제7절(C)과 제8절에서 〈나〉의 내면 묘사는 별로 없고 〈나〉의 의식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즉, 서술내용의 〈나〉와는 무관하게 호칭은 ‘병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에서 (D)로 호칭이 변하는 사이, 세쓰코가 발작을 일으키고 절대안정의 위기에 빠지자, 〈나〉는 지금까지 믿어 왔던 ‘우리의 행복’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행복’이 ‘누군가에게 위협받기 쉬운 것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세쓰코가 절대안정의 상태에서 회복하자, 나도 ‘정신적 위기’로부터 ‘쉽게 헤쳐 나왔다’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그리고 호칭도 ‘세쓰코’로 바뀌고, 이 장의 마지막까지 호칭은 ‘세쓰코’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 호칭의 변화와 〈나〉의 연동관계를 검토해 보았지만, 호칭과 세쓰코의 몸 상태처럼 명확한 연동관계는 보이고 있지 않다.

『바람 일다』에서 세쓰코의 몸 상태의 악화란 그녀의 죽음의 전조(前兆)를 의미한다. 당시 불치병이었던 결핵을 앓고 있는 그녀는 사나토리움에서 중환자였으며, 〈나〉 또한 그녀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음은 그녀가 죽을 차례가 아닌가 하고 불안해한다. 하지만, 화자가 죽음의 전조인 상태의 악화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나〉는 이와 무관하게 그녀의 호흡곤란을 즐기는 듯 때로는 그녀의 건강상태의 악화를 그녀의 죽음과 연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함께 서술되어진다. 즉, 〈내〉가 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쓰코의 죽음을 화자는 그녀를 ‘병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겨울」의 호칭 분석

다음은 「겨울」에서 세쓰코의 호칭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아래의 표는 「바람 일다」의 호칭 분석과 동일하게 「겨울」에서 사용된 호칭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겨울」에서의 ‘세쓰코’·‘병인’)

날짜	10/20	10/23	10/27	11/2	11/10	11/17	11/20	11/26	11/28	12/1	12/10
세쓰코		○	○○	○	○		○	○○			○
병인	○○	○			○○	○	○	○○	○○○○		○○ ○○

위의 표를 「바람 일다」의 ‘세쓰코’·‘병인’ 사용 경향과 비교해 보면, 「바람 일다」처럼 호칭이 명확하게 구분지어 사용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세쓰코’와 ‘병인’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바람 일다」에서는 호칭의 변화가 세쓰코의 몸 상태에 따라서 바뀌었다. 하지만 「겨울」에서 세쓰코의 몸 상태에 관해서는 11월26일 세쓰코가 각혈을 하고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언급밖에 없다. 이처럼 세쓰코의 몸 상태와 무관하게 호칭이 ‘세쓰코’, ‘병인’하고 섞여서 사용되는 것은 「겨울」에서의 세쓰코의 호칭이 그녀의 몸 상태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겨울」의 서술형식이 소설체인 「바람 일다」와는 달리 일기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람 일다」에서의 화자는 서술내용에 대해서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일기체인 「겨울」의 화자는 그 날 그 날의 일기를 쓰고 있는 기술(記述)자인 것이다. 즉, 일기의 기술자이자 화자“나”는 서술되고 있는 <나>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나>의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날 그 날 서술되어지고 있는 <나>에 의해서 그녀를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세쓰코를 때로는 ‘세쓰코’로, 혹은 ‘병인’으로 호칭을 바꿔서 부르게 하는 것일까.

「겨울」은 <내>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주제로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부터 서술이 시작된다. <나>한테 있어서 <나>와 세쓰코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 일다」의 시간에서 공유하였던 우리들만의 행복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에 행태를 주는 행위이다¹⁵⁾.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행복’이란 <나>의 눈과 세쓰코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변함없는 일상생활에서 ‘넘칠 듯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 시간을 초월한 ‘행복 그

15) (전략)지금의 나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행복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에 확실한 행태를 주는 것에 노력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겨울 11월2일」((前略)今の私に自分達の所有してゐる幸福を信じさせ、そして、かうやつてそれにはつきりした形を与へることに努力してゐる私を助けてゐてくれることか!)

자체의 완전한 그림(幸福そのものの完全な絵)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바람 일다」에서 이러한 ‘우리의 행복’은 세쓰코의 죽음의 전조(前兆)이기도 한 그녀의 병의 악화에 의해서 몇 번인가 위기를 맞았고, 그 때마다 이 ‘행복’이 ‘한순간의 것(東の間のもの)’이 아닌가하고 의심하고 괴로워 해왔던 <나>는 이에 형태를 주고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려고 시작한 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것이다.

이렇듯 「겨울」에서는 소설집필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이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내>가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겨울」에서는 이러한 <나>와 다른 <나>의 모습도 엿볼 수가 있다. 그것은 자신이 쓰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되읽고 있는 <나>이다.

11월20일

나는 이제까지 써왔던 노트를 전부 되읽어 봤다. 내가 의도한 바는 이것이라면 어쨌든 자신을 만족시킬 만큼은 씌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나는 이것(자신의 소설)을 읽고 있는 내 안에 그 소설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이미 완전하게 맛 볼 수 없게 된, 정말로 뜻하지 않은 불안한 듯한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겨울」

十一月二十日

私はこれまで書いて来たノートをすつかり読みかえして見た。私の意図したところは、これならまあどうやら自分を満足させる程には書けてるやうに思へた。(原文改行)が、それとは別に、私はそれを読み続けてる自分自身の裡に、その物語の主題をなしてゐる私達自身の「幸福」はもう完全には味はえさうもなくなつてゐる、本当に思ひがけない不安さうな私の姿を見出しはじめてゐた。

위의 인용문에서 소설 속에 씌어진 ‘우리의 행복’을 되읽음으로서 현실의 ‘우리’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나>를 엿볼 수 있다. 현재의 자신들을 다시 보고 있는 <나>의 이러한 의식은 세쓰코를 바라보는 <나>의 ‘눈’에도 반영되고 있다. 「겨울」에서 세쓰코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바람 일다」보다 적으나, 세쓰코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바람 일다」보다 많다.

이처럼 「겨울」에는 「바람 일다」의 ‘우리’를 소설 속에서 재현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 씌어진 ‘우리’에 의해서 현재의 ‘우리’를 상대화하여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나>의 이중성이 세쓰코를 ‘세쓰코’ 혹은 ‘병인’으로 나눠서 부르

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겨울」의 화자는 세쓰코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의식하고 있지 않으며, 「바람 일다」의 서술내용 속의 〈나〉의 연장성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맺으며

본론에서는 『바람 일다』에서의 호칭의 사용 경향을 제3장 「바람 일다」와 제4장 「겨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바람 일다」에서는 〈나〉와 무관하게 세쓰코의 몸 상태에 연동하여 그녀의 호칭이 바뀌었으나, 「겨울」에서는 세쓰코의 몸 상태와는 무관하게 〈나〉에 의해서 그 사용이 구분되어져 있었다. 이는 소설체와 일기체에서 화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 일다」의 화자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쓰코의 죽음을 의식해서, 그녀의 병이 악화되면 그녀를 의식적으로 ‘병인’이라고 불렀지만, 「겨울」의 화자는 「바람 일다」의 〈나〉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죽음을 회피하면서 다가올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화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서 제기한 의문- 「바람 일다」와 「겨울」의 서술시점-를 생각해본다면, 「바람 일다」의 화자보다 「겨울」의 화자가 더 이른 시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답을 내릴 수가 있다. 앞에서 거론한 아카쓰카론은 『바람 일다』의 서술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가능하였으므로, 일기체로 씌어진 「겨울」과 「죽음의 골짜기」도 ‘회상된 시간’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논문이 고찰해 온 바와 같이 「겨울」의 화자는 세쓰코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회상된 시간’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쓰코의 ‘행복’에 갈등을 느끼면서 그 날 그 날의 일기를 기술(서술)하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고이즈미론이나 안도론처럼 「겨울」의 서술은 「바람 일다」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며, 「겨울」의 화자는 오히려 「바람 일다」의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즉, 소설 『바람 일다』의 서술은 제1장 「서곡」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나〉의 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은 『바람 일다』의 작품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바람 일다』읽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赤塚正幸(1996) 「『風立ちぬ』」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 安藤宏(1994) 「現実への回帰—堀辰雄『風立ちぬ』を中心に」 『自意識の昭和文学—現象としての「私」—』, 至文堂
- 小泉浩一郎(1993) 「堀辰雄の近代『風立ちぬ』の位置」 『テキストのなかの作家たち』, 翰林書房
- 高橋英夫(1978) 「二人称の余韻」 『ユリイカ』, 青土社
- 中島昭(1984) 『堀辰雄覚書—『風立ちぬ』まで—』, 近代芸文社
- 渡辺広士(1978) 「『風立ちぬ』の意味」 『ユリイカ』, 青土社